

研究論文

#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이 노 미\*\*

I. 머리말	V. 맺음말
II.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국문요약>
IV.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특성	

## I. 머리말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송·수신자의 대인 접촉을 통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적·공간적 맥락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선행된 과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산물이며 궤적인 까닭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현상에 대한 부분적 이해만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상이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형성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이 논문은 2007년도 성균관대학교 Post-Doc. 연수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07년 12월 1일 한국스피치 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 학술대회(성균관대학교)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강사, 비교 문화학 전공(dlshal@hanmail.net).

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상 가장 큰 변환기인 19세기 조선은 서구와의 문화접촉이 시작되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시작단계의 시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과 서구의 직접적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기 이전의 조선 지식인들은 『고려사』(高麗史)에 이미 서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sup> 서양을 세계 여러 나라 중 한 개의 국가로 인식할 정도로 서구에 대해 무지하였다. 서양에서도 조선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로 17세기 초까지 조선을 섬으로 표기하거나<sup>2)</sup> 혹은 적도나 지중해, 흑해에 위치한 것으로만 추정했다.<sup>3)</sup>

서양과의 본격적인 접촉은 16세기 후반~17세기 초 선교사의 잠입과 일본 항해 길에 표류된 서양인의 표착,<sup>4)</sup> 이양선의 출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조선정부는 서구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서양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sup>5)</sup> 다만 1797년 부산에 들어와 조선인과의 직접적 대인 접촉을 시도한 최초의 서양인인 영국 해군 브루톤(W. R. Broughton) 중령 일행에 대해 『정조실록』(21년 9월 6일)에 “이상한 나라의 범선 한척이 동래 용당포 앞바다에 내항했는데 배안에는 50명이 승선하고 있었고(실제 35명), 그 사람들은 모두 코가 높고 눈이 파랬다. 그들에게 국적과 오게 된 연유를 물어보았지만 중국어, 만주어, 몽고어 및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sup>6)</sup> 브루톤 중령 또한 『북태평양

1) 구만옥, 「17세기 조선과 서양의 만남: 16~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서양이해와 세계관의 변화」, 『동방학지』, 122권(2003), 13쪽.

2) 백성현·이한우,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새날, 1999), 43~44쪽.

3) Bishop, I. B.(지)/이인화(역),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살림, 2003), 17쪽.

4) 조선과 서구의 첫 접촉은 1593년 복음전파를 위해 조선에 파견된 카톨릭 예수회 동양선교단원인 스페인 출신의 세스페데스 신부(Gregorio de Cespedes)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르페데스 신부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와 발송한 서간 2통이 현재 포르투갈 리스본의 아주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까닭에 포르투갈 출신으로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17세기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풍랑에 의해 표류된 이로는 스페인 출신의 멘데스(Juan Mendes)와 조선에 귀화하여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생애를 마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Jan J. Weltevree)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난파된 네덜란드인 하멜(Hendrik Hamel)이 있다.

5) 1801~1847년에 7차례, 1848~1860년에 20차례에 걸쳐 서양선박이 조선해안에 계속하여 출몰하자 조선에서는 “서양과 교통을 하게 되면 2~3년 내 모든 국민이 서양화(西洋化)되어 금수(禽獸)의 지위로 떨어지므로 단연코 배격해야 된다”는 칙사론적사상이 널리 확대되어 서구와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되고 있다. 이광린, 『한국사강좌 근대편』(일조각, 1984), 35쪽.

6) 백성현·이한우, 앞의 책, 102쪽.

탐험기』(*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에서 ‘부산항’을 ‘조선항’으로 기록하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질적인 조선과 서구와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초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거점세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탐색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조선 탐사에 나선 영국 해군장교 바실 홀(B. Hall)은 1817년 서해안 장항만에 도착하여 비인(庇仁) 현감 이승렬(李升烈)과 마량진(馬梁鎭) 첨사(僉使) 조대복(趙大福)과의 직접적 교류내용을 『조선서해탐사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of the West Coast of Corea*)에 기록하고 있다.

이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역사에 휘말리게 된 조선은 결국 서구 열강의 문호개방 압력에 굴복하여,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서구각국과의 조약을 잇따라 체결함으로써 서구인의 자유로운 조선방문과 함께 비로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도래하게 된다. 19세기 후반에는 조선을 찾은 서구인들이 급증하여, 최근 조사에 의하면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을 직접 방문한 이들이 남긴 조선관련 문헌은 약 190여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서구열강의 식민지 이권에 수동적으로 노출된 조선과 서구와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인인식(對人認識)이 전혀 없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작된 만큼 조선이 서구와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또 메시지 해석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총체적 형성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는 17세기 하멜과 조선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동기와 지각, 논리전개 과정을 통해 분석한 「하멜 표류기에 나타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유일할 뿐,<sup>8)</sup> 19세기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므로 이에 대

7) Sands, W. F.(저)/신복룡(역), 『조선비망록』(집문당, 1999), 3쪽. 당시 신문과 학술지, 잡지, 문헌 등을 통해 서구에 소개된 조선 관련 자료는 수천 여종에 이른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모두 조선에 직접 와 보고 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볼 때 19세기 중엽~20세기 초 당시 조선을 직접 방문한 후, 체험담을 출간한 서적은 190여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 최윤희·김숙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범우사, 1997), 221~251쪽.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세기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전개양상을 문화 간 대인접촉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의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부정적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의 오해와 왜곡으로 인한 문화갈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반면 긍정적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이해와 적극적인 문화교류가 시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초기 형성과정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형성과 본질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19세기 당시 서구인들의 기록은 조선과 서구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비롯하여 이(異)문화에 배타적인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과 서구의 초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19세기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조선과 서구인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초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전개양상을 밝혀내고, 나아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형성과정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처음 시도한 19세기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연구문제 2> 조선과 서구의 초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본 연구 목적이 19세기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접근하고자 서구인 기록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19세기 서구인들이 남긴 문헌은 수백여 종에 이르며 문헌의 원본이 서구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

루어진 영국 장교 홀의 탐사시점인 1810년대에서부터 1910년대까지 조선을 직접 방문한 ‘유럽과 미주 지역 서구인’의 국내 번역본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대다수 문헌이 조선 방문연도와 귀환 후 발간한 저서의 발행연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방문 연도를 기준대상으로 하였다. 나아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상호 관계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동기와 경험적 요소의 주요변인을 고려하여 기록자의 성별, 방문목적, 체류기간의 고른 분포를 지향한 결과 총 17종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연구 대상 문헌목록

이름	저서명	국적	직업	성별	조선 방문기간	방문 목적
B. Hall	조선서해탐사기	영국	해군 장교	남	1816.9.1~1816.9.10.	조선해도측량탐사
E. J. Oppert	금단의 나라, 조선	독일	상인	남	1866.2, 1866.6, 1868.4.	무역, 남연군부덤도굴
W. R. Carles	조선풍물지	영국	외교관	남	1884~1886.	조약협상 사전탐사
H. N. Allen	조선건문기	미국	외교관	남	1884.7.20~1904.	의료 및 선교활동
A. Chaille-Long	코리아 혹은 조선	미국	외교관	남	1887~1889.	미국 한성주재 총영사
C. Varat	조선 종단기	프랑스	민속 학자	남	1888~1889.	민속학 연구
L. H. Underwood	상투의 나라	미국	선교사	여	1888~1921(타계).	선교활동
J. S. Gale	전환기의 조선	캐나다	선교사	남	1888.12.15~1897, 1898~1928.	선교활동
A. H. Savage-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영국	화가	남	1890.12.28.	민속연구
I. B. Bishop	조선과 이웃나라들	영국	지리 학자	여	1894~1897 (4차례 방문).	지리탐사 및 여행
카르네프(外)	내가 본 조선, 조선인	러시아	육군 대령	남	1895~1896.	조선지역 탐사
W. F. Sands	조선비망록	미국	외교관	남	1898~1904.	조선주차 미국공사관
Vautier & Frandin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프랑스	외교관	남	1902년 이전.	외교활동
S. Genthe	한국기행	독일	지리 학자	남	1903.	강원도 금광탐사
세로세프스키	꼬레야 1903년 가을	러시아	작가	남	1903.10.10~1903 초.	지리탐사 및 여행
E. Wanger	한국의 아동생활	미국	선교사	여	1904~1940.	선교활동
W. A-son Grebst	한국을 걷다	스웨덴	기자	남	1904.12~1905.1.	러일 전쟁취재 경유지

분석대상 문헌 기록자들의 국적은 미국 5명, 영국 4명,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각각 2명 외에 스웨덴, 캐나다가 각 1명씩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업은 외교관 5명, 군인 2명, 선교사 3명, 지리학자 2명, 상인, 민속학자, 화가, 기자, 작가가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은 남성이 14명으로 82%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체류기간별로는 1년 이내가 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2~3년 이내 3명, 4~6년 2명, 20년 이상이 4명, 미상 1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sup>9)</sup> 텍스트 문맥으로부터 타당한 증거 틀을 제시하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의 일종인 내용분석에 근거한다.

## II.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와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다의적 개념이 포함되어 그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사모어(A. Samovar)와 포터(E. Porter)는 “메시지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른 문화 구성원일 때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문화적 인식과 상징체계가 상이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sup>10)</sup>으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규정하고 있다. 말레츠키(G. Maletzke)는 “문화를 달리하는 구성원들 간의 사고와 의미의 교환과정”<sup>11)</sup>이라고 하였으며, 잔트(E. Jandt)는 “다양한 문화 구성원들 사이의 대면(對面)적 상호행위”<sup>12)</sup>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문화배경이 다른 사회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징체계의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1차원 메시지 회로인 언어적 요소와 2차원 메시지 회

9) 김우룡·장소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나남출판, 2004), 507쪽.

10) Samovar, Larry A. & Richard E.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Belmont, CA: Wadsworth, 2004, p. 15.

11) Maletzke, Gerhard, “Intercultural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H. D. Fisher and J. C. Merrill(eds.), *International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 Y.: Hastings Publishers, 1976, p. 409.

12) Jandt, Fred 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1998, p. 36.

로인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된다.<sup>13)</sup> 언어의 외연적·내연적 의미와 내용을 담은 행위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 손짓, 몸짓, 자세, 시선, 표정, 신체접촉 등 모든 형태의 비언어적 기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요소의 상호작용은 발음과 어의, 어휘, 문법, 어용, 문자 등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sup>14)</sup> 반면 상이한 언어체계를 지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징적 기호체계인 손짓, 몸짓, 눈짓의 비언어적 요소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유용하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정보전달에 효과적인데 비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보다 용이한 까닭이다. 비언어의 신체동작은 무려 70만여 개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다.<sup>15)</sup> 비언어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를 반복, 상반, 보완, 강조, 대체,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16)</sup> 비언어 동작유형에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된 행위인 ‘적응동작’과 언어를 대체하는 ‘상징동작’을 비롯해 언어를 반복, 강조하는 ‘설명 동작’,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감정표현 동작’이 있다. 또 대화의 시작과 끝을 알리거나 주제를 바꿀 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조절동작’으로 구분된다.<sup>17)</sup>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태도와 신념, 가치관의 집단적 표상으로서의 비교문화 연구의 준거 틀인 문화적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적 차원은 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② 불확실성 회피 정도, ③ 권력 거리 차이, ④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분류되어<sup>18)</sup> 직접적/간접적, 주관적/객관적, 형식적/비형식적, 수평적/수직적, 내향적/외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홀(E. T. Hall)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영

13) Kendon, Adam, *Nonverbal Communication, Interaction, and Gesture: Selections from Semiotica*, The Hauge: Mouton Publishers, 1981, p. 57.

14) 關世杰(저)/한인희(역), 『이문화 교류학』(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306쪽.

15) Samovar, Larry A. & Richard E. Porter, *op. cit.*, p. 117

16) 김우룡·장소원, 앞의 책, 72쪽.

17) Knapp, M. L.,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N.Y.: Holt, Rinehart & Winstin Inc., 1972, pp. 4~11.

18) Hofstede, Geert,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1991.

향을 미치는 맥락을 기준으로 문화적 차원을 고맥락(high context)과 저맥락(low context)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원화하고 있다.<sup>19)</sup> 맥락(context)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언어적 표현과 상황, 배경이 갖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일컫는다.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보다는 상황과 배경을 중시하여 간접적이고 함축적인 의사 전달에 중점을 두므로써 ‘눈치’와 ‘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와 달리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언어 메시지를 중시한다.

각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가치 차원은 학습과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습득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결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면 원활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유사성 추구와 자민족 중심주의, 고정관념, 편견, 인종차별, 문화충격, 불확실성, 권력 등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0)</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적·비언어적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적 차원에 근거한 조선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III.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 1. 언어 커뮤니케이션

상징체계인 언어는 문화의 기본요소이자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이며,<sup>21)</sup> 메시지 전달에 주요한 요소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의 차이는 언어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 수신자와 송신자가 서로 상이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부호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곧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서구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던 초기의 조선인들은 언어 보다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한자를 통한 필담(筆談)을 의사소통의 주요 도구로 활용한 특성을 보인다. 이

19) Edward, T. Hall, *Beyond Culture*, N. Y.: Anchor Books/Doubleday, 1976, pp. 85~128.

20) Samor, Larry A. & Richard E. Potter, *op. cit.*, pp. 283~300.

21)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나남, 1994), 75쪽.

는 태조 2년(1393년)에 통역자의 양성과 외국어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사역원(司譯院)이 중국어(漢學)와 몽골어(蒙學), 여진어(女眞學), 일본어(倭學)의 사학(四學)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항 전 조선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이 전무하여 초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J. S. Gale)은 『전환기의 조선』에서 조선인과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불편함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언어. 이것은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어린아이가 되어 단음절의 짧은 말로 수다를 떨어야하고 바보스러운 일을 말해야하고 그러면서도 실수를 저지르거나 친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당신이 현명하고 깊이 생각한다 해도 실제로는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sup>22)</sup>

서해탐사를 하러 온 영국장교 홀(B. Hall)은 조선인과의 의사소통에 난항을 겪자 결국 영어 필담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현감은 서기에게 구술을 받아 적게 한 뒤 필담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맥스웰 대령이 그를 깨우쳐주기 위해 택한 방법은 명확했다. 그는 즉시 종이를 요구하고 그 위에 영어로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모르겠다”고 써서 이번에는 그에게로 행해졌던 모든 형식과 의식을 갖춰 필담용지를 돌려주었다. 그것을 받은 현감은 주의해서 글자를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며 종지와 맥스웰 대령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번갈아 쳐다보았다. 다만 맥스웰 대령이 그의 손에 들고 있는 필담 용지에 대해 꼭 같은 표정과 몸짓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자 그는 어색한 궁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광동에 돌아와 모리슨 씨에게 이 글을 보여주고 번역을 부탁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은 어떤 땅, 어떤 나라의 사람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에 왔습니까? 이 배 안에는 이 필담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식자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였다).<sup>23)</sup>

조선인이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곤혹을 치른 홀은

22) Gale, James S.(저)/신복룡(역), 『전환기의 조선』(집문당, 1999), 130쪽.

23) Hall, B.(저)/신복룡(역), 『조선전』(집문당, 1999), 33쪽.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정보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여행자는 한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sup>24)</sup>

홀과 같이 초기의 일부 서구인들은 중국어가 조선 어디에서나 통용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지니고 있었다.<sup>25)</sup> 때문에 중국인 통역사를 고용한 서구인들은 조선에서 중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사실을 체험한 이후부터 한자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한다. 예컨대 배를 이용해 서해안에 도착한 독일 상인 오페르트(E. J. Oppert)는 중국인 통역사와 조선인 관리와의 필담을 통해 도착지명을 알아내기에 이른다.<sup>26)</sup> 필담은 주로 종이에 써서 진행되나 급한 경우에는 땅바닥에 한자를 적는 방법도 사용되었다.<sup>27)</sup> 날이 어두워져 필담이 어려워지면 사람들로 하여금 통역사의 손을 잡게 하여 지팡이로 진흙 위에 한자를 써 손의 움직임을 감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sup>28)</sup>

그런가하면 중국어의 의미가 조선에서는 달리 사용되어 필담이 잘못 해석되는 사례도 보인다. 이를테면 “부두에서 짐을 가져오라”는 의미의 ‘埠頭(부두)’는 조선에서는 ‘말머리’라는 의미이므로 부두로 가야할 짐꾼이 말머리 쪽으로 달려가는 메시지의 오류가 발견된다.<sup>29)</sup>

이로 인해 “음식과 수송동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나라의 백성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통역관”<sup>30)</sup>이라는 독일 지리학자 겐테(S. Genthe)의 기록에서처럼 모든 서구인들은 조선 통역자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지리학자인 비숍(I. B. Bishop) 여사는 영국을 떠나기 전 조선으로부터 여행을 극구 말리는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믿을만한 조선인 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여행을 포기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을 정도였다.<sup>31)</sup> 이처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초기

24) 위의 책, 56쪽.

25) Kemp, E. G.(저)/신복룡(역), 『조선의 모습』(집문당, 1999), 33쪽.

26) Oppert, E. J.(저)/신복룡(역), 『금단의 나라, 조선』(집문당, 2000), 155쪽.

27) 위의 책, 155쪽.

28) Bishop, I. B., 앞의 책, 30쪽.

29) Allen, H. N.(저)/신복룡(역), 『조선건문기』(집문당, 1999), 24쪽.

30) Genthe, Siegfried(저)/최석희(역), 『겐테의 한국기행』(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42쪽.

31) Bishop, I. B., 앞의 책, 65쪽. 비숍여사가 받은 조선에서 온 편지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선에 도착한 비숍여사가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코르페 주교와 감리교

서구인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영어가 가능한 중국인 통역관들을 고용함으로써 중국인이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중간자적 입장에 자리하게 된다.

개항 이후에는 러시아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학교가 생겨나 조선인 통역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프랑스 외교관인 뒤크로(G. Ducrocq)는 1886년에 설립된 프랑스 학교를 찾아가 상투를 튼 조선학생들이 프랑스 역사와 지리를 배우는 것을 보고 큰 호감을 갖는다.<sup>32)</sup> 이 무렵 언더우드(L. H. Underwood)와 게일, 와그너(E. C. Wagner) 등의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습득함으로써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적극적 형태로 변화하기에 이른다. 당시 조선인 통역사들은 하루 3달러, 선교학당 학생의 경우에는 30전 정도의 보수를 받았으며,<sup>33)</sup> 러시아 작가 세로세프스키(B. Серомевский)는 원산에서 서울까지 함께 동행한 조선인 영어 통역사에게 하루 2루블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황제와 외교관들의 통역을 맡은 궁중 통역사들은 언제나 손을 포개고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공손한 태도로 속삭이듯 한 목소리로 통역을 했으며,<sup>35)</sup> 간혹 보이지 않는 칸막이 뒤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sup>36)</sup> 서구인들은 처음에는 한국인 통역사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았으나 점차 그들의 충직함과 따뜻한 호의에 감동되어 상호 인간적 교류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조선인 통역사들은 극히 초라한 조선의 부정적 모습을 서구인들에게 가급적 알려주지 않으려 함으로써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지닌 문화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세로세프스키가 남루한 민가의 부엌 구조를 보려고 하자 어느 새인가 통역사가 다가와 슬그머니 그를 불품없는 부엌에서 떼어내고자 애썼으며 여행 중 “꺼림직한 상정물”에 관해서는 “고개를 내저으며 결코 이야기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7)</sup>

---

계통 미션 스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직자로 추정될 뿐이다.

32) Ducrocq, Georges(저)/최미경(역),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눈빛, 2001), 122~123쪽.

33) Genthe, Siegfried, 앞의 책, 43쪽.

34) Серомевский, Вацлав(저)/김진영·안지영·권정임·안상훈·이장욱(역), 『꼬레아, 1903년 가을』(개마고원, 2006), 34쪽.

35) Genthe, Siegfried, 앞의 책, 159쪽.

36) Underwood, L. H.(저)/신복룡·최수근(역), 『상투의 나라』(집문당, 1999), 51쪽.

37) Серомевский, Вацлав, 위의 책, 112, 223쪽.

하지만 통역을 통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까닭에 대화가 금방 시들해지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역 전달과정에서 언어의 상이성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 및 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아래로 올라간다”(increasing to less)고 표현하는 가하면,<sup>38)</sup> 독일인 칼스(W. R. Carles)의 통역관은 “독일이 영국의 속국”이라는 엄청난 오역을 범한 사례도 있다.<sup>39)</sup>

한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처음 노출된 조선인들은 낯선 이방인과의 소통을 두려워하면서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군산도에 도착한 영국 해군 장교 홀은 팔을 잡고 꼬집는 조선인에게 “patience sir!”라고 소리치자 조선인들은 이를 완벽한 영어발음으로 반복, 재현해내며 어두워질 때까지 영어를 배우는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sup>40)</sup>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100베르스타(106.7km) 떨어진 마을 사람들 상당수가 “안녕하십니까? 대위님들?” 등의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러시아 장교들을 기쁘게 한 사례도 있다.<sup>41)</sup> 이로 인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외국어의 관심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에 이르러서는 언더우드의 『한어사전』과 게일의 『한영사전』이 편찬되어 사전을 통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적극 시도되고 있다. 스웨덴 아손(W. A-Son) 기자는 사전에 표기된 “요릿집”(Yawre-Chip)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호텔을 찾아 갔으며 인력거꾼에게 “우표 한 장 부쳐”(Oo-ppyaw han chang put-t)라고 말함으로써 우체국에 당도한다.<sup>42)</sup> 하지만 사전을 활용한 직접적 언어소통에서는 동의어와 발음상의 오류로 인한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즉 알렌 박사가 요리사에게 ‘칵테일’(cocktail) 세잔을 가져오라는 쪽지를 주었더니 사전에서 ‘칵테일’의 뜻을 파악한 요리사가 닭 콩무니를 한참 쫓아다닌 뒤 닭의 꼬리털(cocktail) 세 개를 뽑아오는 소동을 벌린다. 또 병을 치료해준 환자가 은혜를 갚겠다며 알렌 박사의 병

38) Allen, H. N., 앞의 책, 178쪽.

39) Clres, W. R.(저)/신복룡(역), 『조선풍물지』(집문당, 1999), 167쪽.

40) Hall, B., 앞의 책, 51~52쪽.

41) Карнеев, В. Н.(저)/김정화(역), 『내가 본 조선, 조선인』(가야넷, 2003), 273쪽.

42) Grebst, W. A-son(저)/김상열(역),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전 한국을 걷다』(책과 함께, 2005), 37, 59쪽.

원에 머물자 이를 거절하기 위해 ‘남에게 폐가 된다’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 보여주었더니 환자가 엉뚱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야 알렌 박사는 비로소 ‘냄새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동의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sup>43)</sup> 아손 기자는 불편하게 앉아있는 지계꾼에게 ‘벽에 편히 기대시오’라는 말과 유사한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벽에 기대놓아라’(Paywk-ay kee tai no-arrah)고 하여 지계꾼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sup>44)</sup>

‘철로’(chull-law)의 ‘로’(law)를 조선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길고 명확히 발음하는 대신 영어식으로 짧게 발음하여 의사소통의 단절을 야기하는 음절의 장단에 대한 오류도 발견된다.<sup>45)</sup> 또 ‘그만’이라는 말과 ‘계속하라’(Come on)는 상반된 의미의 영어와 조선어의 유사발음으로 인한 장애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발전소 보일러 밑에 들어간 미국인이 보일러를 좀 더 높이 올리라고 ‘Come on’(계속하라)이라고 외쳤는데 이를 ‘그만’이라고 알아듣는 조선인들이 로프를 늦추는 바람에 보일러 밑에 깔려 죽을 뻔했던 웃지 못한 일도 있다.<sup>46)</sup> 뿐만 아니라 방언(方言)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로 작용하여 “대구를 지나 남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지방 사투리가 심해져 서로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sup>47)</sup> 제스처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조선과 서구인의 생활방식과 인식의 차이는 심각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사고를 규정하는 언어가 상이할 경우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이해함으로써 언어의 차이가 곧 문화의 차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sup>48)</sup> 알렌 박사는 “우리의 생활방식이 조선 사람의 생활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이곳의 하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적고 있다. 예컨대 한 미국인 부인이 파리를 잡으려고 창문에 모기장을 치고 요리사에게 끈끈이를 주었더니 하인이 모기장을 떼고 창문에 파란 끈끈이 종이를 늘어뜨려 놓아 당황했다는 것이다.<sup>49)</sup> 또 병원에서 “쪽지 지참인에게 피마자 기

43) Allen, H. N., 앞의 책, 73쪽.

44) Grebst, W. A-son, 앞의 책, 63쪽.

45) 위의 책, 37쪽.

46) Allen, H. N., 앞의 책, 74쪽.

47) Varat, Charles & Chaillé-Long(저)/성귀수(역), 『조선기행』(눈빛, 2001), 187쪽.

48) Jandt, Fred E., *op. cit.*, p. 129.

름을 줌 주십시오”라는 쪽지를 받은 알렌 박사는 심부름 온 조선인 하인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마자 기름을 부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인식의 차이도 발견된다.<sup>50)</sup> 비숍여사의 경우 조선인들에게 차를 건네주자 조선인들은 “이것은 틀림없이 소화 불량에 매우 좋은 것이겠지요”라며 차를 약으로 여기며 마시는 사례도 있다.<sup>51)</sup> 이는 조선인이 서구인들 모두 의술이 뛰어난 사람들로 파악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초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 의거한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두드러져 다음과 같은 문화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나는 여행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면 가능한 한 짐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으나 의외로 청년은 완강했다. 자기로선 옷을 절대로 아홉 벌 밑으로 는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단 두벌만 가지고 다니며 나 또한 두 벌로 줄일 작정이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그는 “그래요. 하긴 외국인들은 워낙 습관이 더러우니까요”하며 코를 후비는 것이었다.<sup>52)</sup>

비숍 여사가 만난 조선 청년 통역사는 서구인을 더럽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아손 기사는 “스웨덴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들 중 하나이며 나라의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코레아와 같은 소국에는 대신을 파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sup>53)</sup>며 자민족중심주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선과 서구인의 문화 간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시대 변천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인 통역사와 한자어 필담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조선인 통역사를 거쳐 사전과 한국어 습득을 통한 직접적 대인 접촉으로 발전하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으로는 동의어와 음절의 장단, 유사발음, 지역 방언의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인식 차이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그만’, ‘폐가 된다’, ‘기대시오’ 등의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높은

---

49) Allen, H. N., 앞의 책, 126쪽.

50) 위의 책, 185쪽.

51) Bishop, I. B., 앞의 책, 121쪽.

52) 위의 책, 66쪽.

53) Grebst, W. A-son, 앞의 책, 277쪽.

내연적 의미(connotative meaning)를 지닌 언어는 구체적 사물을 지시하는 외연적 의미(denotative meaning)의 언어보다 더욱 난해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 2.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질적 언어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보다 비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의 조선과 서구인의 초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비언어적 요소에 치중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를 대체하는 필담 조차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손짓, 몸짓, 눈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메시지 교환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조선인과 서구인의 의사소통은 그림을 그려 소통하거나 혹은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절하고 웃고, 웃고 절하는 행동이 지겹도록 반복될 뿐”<sup>54)</sup>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웃거나 악수를 했던것으로 기록되고 있다.<sup>55)</sup> 사교술이 뛰어난 아손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덩달아 웃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웃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를 통해 상이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웃음이 친근감을 형성하는데 효율적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조선인들은 언어를 대체한 상징동작과 적응동작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 관리를 만난 영국 장교 홀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유용성에 대해 “모든 일은 수화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는데 현감은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한마디 말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sup>56)</sup> 이에 조선 현감은 그의 머리를 내려뜨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가로 지르는 동작으로 홀이 상륙하면 자신이 처형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또 ‘이틀’이란 기간을 언급하기 위해 태양을 가리키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두 번 몸짓을 하고 한번 끝날 때마다 자는 것처럼 눈을 감는 동작을 행하였다. 취침시간은 잠자리 준비를 하고 눈을 감고

54) Bishop, I. B. 앞의 책, 358쪽.

55) Varat, Charles & Chaillé-Long, 앞의 책, 53쪽.

56) Hall, B., 앞의 책, 40쪽.

팔베개를 베고 코를 고는 시늉의 상징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다. 홀 역시 선박의 승선인원을 알리기 위해 “양쪽 손의 손가락을 여덟 번이나 펴 보이고”<sup>57)</sup> 있다.

조선과 서구인의 이러한 상징동작은 메시지의 전달은 용이하나, 커뮤니케이션의 총체적 맥락의 의미전달에는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틀’이라는 동작은 이해되나 ‘이틀 뒤에 현감이 처형된다’는 의미인지 혹은 ‘정부와의 교신이 가능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정확한 의미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취침 시간’ 역시 ‘자고난 뒤 낮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미인지, ‘자겠다’는 의도인지 예측 할 수 없는 상징동작인 것이다. 따라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상징동작은 메시지의 의미 전달과는 달리 오히려 의사소통의 맥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의식 절차를 지닌 궁정에서도 서구인들의 수평적 인사법을 이해한 까닭에 조선의 대신들은 황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반면 서구인들은 가볍게 목례 인사로 대체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sup>58)</sup> 하지만 왕 앞에서는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등을 굽혀야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공사가 이를 거부한 채 이유를 묻는 왕에게 “눈을 크게 뜨고 전하를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전하께서 눈을 통해 그 사람이 지닌 충성심과 헌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sup>59)</sup>이라고 항변한 다음부터 서구인들에게는 왕과의 시선접촉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서구에서 유래된 악수동작은 개항 직후 19세기 후반부터 궁궐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외교관 샌즈(W. F. Sands)가 왕과 왕비와의 작별을 고할 때 왕만 샌즈에게 악수를 청한 반면 비숍여사와 헤어질 때에는 왕비만이 손을 내미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소에 머물고 있는 캠프여사의 손을 잡아 악수를 청한 대상도 소녀였던 것으로<sup>60)</sup> 미루어볼 때 남녀의 신체접촉이 금기시되는 까닭에 이성(異性)간의 악수 또한 기피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인 화가 새비지(A. H. Savage-Landor)는 환관과의 힘없는 악수에 대해 “어찌나 불쾌하던지. 차갑고 뼈가 없는 것처럼 물컹거리고 손은 마치 두꺼비를 쥐어주

57) 위의 책, 40-44쪽.

58) Карнеев, В. П., 앞의 책, 86쪽.

59) Vautier, Madame Claire & Hippolyte Frandin(저)/김상희·김성언(역),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태양사, 2004), 83-84쪽.

60) Kemp, E. G.(저)/신복룡(역), 『조선의 모습』(집문당, 1999), 84쪽.

는 것 같은 감촉”이라며 조선인과의 악수에 대한 느낌을 상세히 적고 있다.<sup>61)</sup> 오늘날 서구인들 또한 손에 힘이 빠져 물컹거리는 감촉의 악수를 ‘데드 피쉬’(dead fish)라고 하여 혐오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이미 19세기부터 이러한 악수법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물포의 한 호텔에서 묵고 있던 세비지는 “벨이 있을 리가 없어 하인을 부르기 위해 일본인들의 습관대로 손바닥을 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고 있다.<sup>62)</sup> 이를 통해 오늘날 종업원을 부를 때 사용하는 손뼉 치기 동작이 당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여 진다.

악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성간의 신체 접촉은 금기시된 반면 남성끼리의 신체적 접촉은 홀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로에 대한 호의적 감정으로 발전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고 군산 열도의 집 구경을 하고 싶어서) 맥스웰 대령은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시늉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자 마침내 제일 나이든 사람의 손을 잡아 자기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시도까지 했다. 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 그의 예를 따랐다. 이러한 허물없음이 원주민을 즐겁게 하여 이제 기분 좋게 우리를 동행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걷는 것에 편안해하고 무관심한 것이 놀라웠고 또 너무나 어색해하지 않아서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이 한국의 유행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sup>63)</sup>

서구인에게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하거나 못마땅한 방식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거부의 의사를 나타낼 때 ‘손사래’를 치는 행위, 성인 남자들이 만족스런 포만에 이르렀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트림을 뱉어내고 배를 두드리는 행위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계승된 적응 동작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선인들은 대체로 입술과 입언저리를 치켜 올리는 서구인과는 달리 반대로 아래로 늘어뜨리는 근엄한 표정을 짓는가 하면 상대방을 멸시할 때도 속이 뻗히 보이는 고상한척하는 태도로 위엄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4)</sup>

61) Savage-Landor, A. H.(저)/신복룡(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집문당, 1999), 98쪽.

62) 위의 책, 29쪽.

63) Hall, B., 앞의 책, 50쪽.

결국 19세기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악수와 박수치기 등의 새로운 비언어 행위가 수용된 시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항상 상대방과의 직접적 시선접촉을 유지하는 서구인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시선을 회피하는 조선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당시 긍정 의전양식의 변화는 서구인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만 한 점은 초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를 강조하거나 반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명 동작과 감정표현 동작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를 매개로 한 직접적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예를 증시하는 조선사회에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는 체신을 떨어트리는 경박한 행위라는 인식이 만연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IV.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특성

##### 1. 정보획득을 위한 주관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타인과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초기의 조선인은 낯선 외부인과의 접촉에 불안과 긴장, 경계로 대항하는 배타적 성향을 보임으로써 정보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반면 서구인으로 부터 이방(異邦)의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이해관계와 실리적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서구인의 가치관과 달리 내집단의 친분관계를 중시하는 조선인들은 신뢰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인간관계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달리 지도층의 억압과 형벌로 외부로 노출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sup>65)</sup>

조선의 주관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서해안 섬 주민에게 한양으로 가는 길을 묻자 모두 입을 굳게 다물어 정보를 봉쇄함으로써 결국 항로가 차단되는 사례를 통해 쉽게 드러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외부에 폐쇄되어 있던

64) 위의 책, 249쪽.

65) Boulesteix, Frédéric(저)/이향·김정연(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청년사, 2001), 37쪽.

조선인들에게 낯선 서구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훌륭한 정보제공자로 비추어진다. 조선인들은 서구와 그 주변국가의 법과 질서, 인구, 생업상태, 건축물, 식민지 점유율, 무역량 등의 질문을 끝없이 쏟아내 서구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궁정에 들어간 비숍여사는 황제가 시베리아와 일본철도에 대한 리(里)당 건설비, 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감정, 영국의 관리등용제도, 영국귀족들의 권리와 하층민 생활을 비롯하여 영국 왕과 내각의 관계, 왕실 경비 등을 궁금해 하자 “질문이 너무 많고 집요해서 거의 난처할 지경이었다”고 적고 있을 정도다.<sup>66)</sup>

질문 내용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 지적 수준, 커뮤니케이션 대면상황에 의한 주관적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제의 경우 영국황실과 일본 중심의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획득이 주요 관심거리인데 반해 외부 사정에 어두운 지방 관리들은 서구인이 관찰한 다른 지방의 무역량과 자원, 인구, 생업상태, 법규 등의 경제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67)</sup> 조선인 감옥 간수장은 스웨덴에서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사지절단 형벌이 있는지와 경범죄 죄인에게 족쇄를 채우는지에 대한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정보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68)</sup> 마마에 걸린 한 조선인은 서구인이 어떻게 마마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sup>69)</sup> 조선인의 정보획득은 개인 구성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조선여행의 느낌과 여행경로, 건강에 대한 개인적 안부도 주요 질문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사적 질문을 기피하는 서구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가 몇이냐,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 자식이 있느냐, 그리고 왜 자식이 없느냐” 등의 무례한 질문을 일방적으로 퍼붓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sup>70)</sup> 이에 비숍 여사는 “당신이 낯익은 조선 사람과 마주친다면 그는 틀림없이 당신과 친척들의 안부를 물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당신도 그의 가족과 친지의 안부를 성의 있게 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감정은 상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sup>71)</sup> 사적

66) Bishop, I. B., 앞의 책, 302쪽.

67) Genthe, Siegfried, 앞의 책, 224쪽.

68) Grebst, W. A-son, 앞의 책, 279쪽.

69) 위의 책, 115쪽.

70) Underwood, L. H., 앞의 책, 36쪽.

71) Bishop, I. B., 앞의 책, 252쪽.

질문에 의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인들은 정보제공은 기피한 반면 서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획득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조선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객관적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서구인과의 잠재적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2. 예의지향의 형식적 커뮤니케이션

예의범절을 증시하는 조선의 유교적 생활규범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 특성이 반영되어 조선인은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를 갖춘 형식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서구인들은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습관은 매우 보편적이고 관대하게 적용되어”<sup>72)</sup> “조선인들보다 더 점잖고 친절한 민족은 없다”<sup>73)</sup>고까지 적고 있다.

특히 서구인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태도는 갖가지 진귀한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도 “접대가 변변치 못하여 죄송하다”고 하거나 “편안한 잠자리가 누추하다고 사과하는” 방어적 커뮤니케이션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sup>74)</sup>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관례적 표현으로 서구인들은 조선인의 공손함과 정중하면서도 친절한 품위에 모두 경탄해마지 않는다. 한 예로 미국 외교관인 샌즈가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강둑에 서서 넘치는 강물 위에 배를 타고 있던 조선인을 불렀더니 예의범절이 깎듯한 그가 샌즈의 말을 듣기 위해 배에서 일어섰다가 중심을 잃고 익사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정도라는 것이다.<sup>75)</sup>

겸양과 공손을 바탕으로 한 조선인들의 예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를 체험한 서구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테면 프랑스 민속학자 바라(C. Varat)는 시골 논둑길에서 마주친 노인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모든 조선인들이 정강이까

72) Varat, Charles & Chaille-Long, 앞의 책, 115쪽.

73) Gale, James S., 앞의 책, 90쪽.

74) Карнеев, В. П., 앞의 책, 127쪽.

75) Sands, W. F., 앞의 책, 189쪽.

지 오는 눈물 속으로 침병 뛰어들며 공손히 절하는 것을 보고 그 역시 눈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연장자에게 예우를 표하는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sup>76)</sup> 서구인들은 조선 사람들의 게걸스러운 식탐이 예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사양하는 것도 큰 결례이지만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것은 식사예의에 더욱 크게 어긋나는 결례”로 여겨 배가 터질듯이 과식을 하는 체험담도 기록된다.<sup>77)</sup>

예(禮)를 통한 직접적 체험은 조선 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계기가 됨으로써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형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상대방 감정을 최대한 존중해준 만큼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동등한 감정적 배려를 기대함으로써 결국 상대방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목시적인 상호원칙에 기인한 때문이다. 서구인들이 예로서 조선인을 대한 것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적 향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권위와 계층 위주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조선인의 인간관계는 위계질서와 서열성을 강조한 수직적인 권위의식에 근거하므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상보적 관계는 연령과 성, 지위를 극대화하는 차별언어로 나타난다. 샌즈는 “상대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사의 어미변화가 달라지며 이것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천박한 사람”으로 간주된다고 적고 있다.<sup>78)</sup> 서구인들도 왕궁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종미사인 ‘~십나이다. ~십니까? ~십시오’ 등의 긴 꼬리말이 붙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sup>79)</sup>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조선인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직업과 신분, 연령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활용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세를 낮추어 정중한 자세를 취해 메시지를 듣는 청자(聽者)의 입장이 되는 반면 신분이 낮으면 보다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수

76) Varat, Charles & Chaille-Long, 앞의 책, 187쪽.

77) Savage-Lando, A. H., 앞의 책, 183쪽.

78) Sands, W. F., 앞의 책, 144쪽.

79) Underwood, L. H., 앞의 책, 47쪽.

직적 커뮤니케이션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조선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러시아 육군대령 카르네프는 “고관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일반 평민들은 누구나 다 그들 앞에서는 고개를 깊숙이 숙여야만 하였다. 고관들이 있는데서 먹고 마시고 담배피우고 앉는 것은 큰 과실이었으며 이럴 경우 별로 50대 정도 곤장을 맞을 수도 있었다”<sup>80)</sup>고 적고 있다. 또 연령에 의한 서열 권위의식으로 조선에서는 “연로하다는 것이 곧 영예로운 것으로 인식되어” 인사말 역시 “어제보다 스무 살은 더 잡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다.<sup>81)</sup> 아울러 성별에 따른 여성비하의 남성 중심적 태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비숍 여사가 지방 관리를 찾아가자 여성이라고 무시하여 방안으로 들이지 않고 방문 사이에 서있으라고 명령을 하며 절을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방관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sup>82)</sup>

이를 통해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서구인들에 의해 부분적 변화만을 초래하였을 뿐 서열중심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 4. 감정절제의 내향적 커뮤니케이션

조선인들은 상호관계적인 인간관계의 원만한 조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내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 감정을 억제하고 내적인 자기완성과 추상적 사고를 추구하는 경향을 당시 조선인들은 ‘개구리’라는 뜻의 ‘머구리’로 일컫고 있다.<sup>83)</sup>

서구인들도 조선인들의 내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간파하여 “조선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릴 때부터 고통이나 즐거움, 슬픔, 혹은 흥분의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을 특별히 배우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sup>84)</sup> 언더우드 여사는 “오랜 전통을 지닌 양반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80) Карнеев, В. П., 앞의 책, 179쪽.

81) Varat, Charles & Chaille-Long, 앞의 책, 13쪽.

82) Bishop, I. B., 앞의 책, 110쪽.

83) Серометский, Вацлав, 앞의 책, 311쪽.

84) Savage-Lando, A. H., 앞의 책, 222, 249쪽.

자제력을 잃고 노여움을 보이는 것은 우리들에게 천주 십계명을 어기는 것 보다 더 졸렬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문의 체통을 손상시킬 수 있다”<sup>85)</sup>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의 양반들은 자제력을 잃고 노여움을 보이거나 크게 웃으며 기쁨을 요란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체신을 잃는 것으로 여긴다. 서구인이 어설피게 젓가락을 놀리는 모습을 본 조선인들은 미소를 짓다가도 얼른 “감정을 내보인 것이 부끄러운지 긴 담뱃대로 전보다 더 세차게 담배연기만을 뿜어”대는 모습을 연출하여<sup>86)</sup>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자신의 체면은 물론 상대방과 집단의 체면까지 중시하여 상호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인들은 아무리 조선인들이 감정을 억제할지라도 그들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것을 쉽게 눈치 채고 있다. 감정적 표현은 언어보다는 표정, 자세 등 비언어 행위로 전달되므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정확한 단서를 제공하는 까닭이다. 결국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조선인들의 감정 억제를 위한 내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서구인과의 가장 정확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셈이다.

##### 5. 상황과 직관이 중시되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함으로써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갖는 서구인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테면 서구인들은 대화에서 여운을 남기고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sup>87)</sup> 조선인들의 이상한 언어와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괴상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면서<sup>88)</sup> “겉으로 보기에 대화의 주제에 별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적고 있다.<sup>89)</sup>

구체적인 언어 메시지를 중시하는 서구인에게 조선의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은

85) Underwood, L. H., 앞의 책, 22쪽.

86) Grebst, W. A-son, 앞의 책, 64쪽.

87) Sands, W. F., 앞의 책, 144쪽.

88) Hall, B., 앞의 책, 23쪽.

89) Savage-Landor, A. H., 앞의 책, 252쪽.

메시지 전달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장애 유발 요인인 것이다. 조선과의 교류를 요구하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에게 조선정부는 북경으로 가서 조선의 개방을 허가하는 황제의 칙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다. 이에 오페르트는 교류를 거부하는 조선 정부에게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거절하는 편이 오히려 영예롭지 않습니까?”라고 항변한다.<sup>90)</sup>

또한 대화의 논리방식에 있어 본론을 먼저 제기하는 서양인들에 반해 지나긴 서론 끝에 본론을 대화 말미에 제시하는 나선형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는 조선인과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오페르트는 “동양을 방문할 때마다 늘어놓은 쓸데없고 지겨운 미사여구가 시작되었다”며 강한 반발심을 나타내고 있다.<sup>91)</sup>

한편 조선의 신중함과 거부감, 당혹감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침묵과 미소의 함축적인 의미는 직접화법을 구사하는 서구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애매모호한 은유적인 맥락을 눈치와 감, 직관의 심층적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메시지 해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 V. 맺음말

‘은자의 나라’로 불리며 서구와의 교류가 차단되었던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 것은 불과 100여년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은 단일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여 다른 민족과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서투른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조선의 폐쇄적인 관점으로 시작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 감정이입과 문화변용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조선 최초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에 19세기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 문헌 17종을 선정하여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과 서구인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중국인 통역사와 한자어 필담으로 시작하여 점차 조선인 통역사를 거쳐 사전편찬과 한국어 습득을 통한 직접적

90) Oppert, E. J., 앞의 책, 255쪽.

91) 위의 책, 188쪽.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초기에는 언어보다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메시지 전달에 보다 효과적이며 웃음이 친근감을 형성하는데 효율적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언어를 통한 직접적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음절의 장단, 유사 발음, 지역 방언과 함께 문화 차이로 인한 정보오류 및 메시지 왜곡의 장애가 발견된다. 특히 상징적·추상적 개념이 높은 내연적 의미를 지닌 언어는 구체적 사물을 지시하는 외연적 의미의 언어보다 더욱 난해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넷째, 초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징행위와 적응행위의 신체언어가 주로 사용되지만 상징행위의 경우 총체적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선인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주관적·형식적·내향적·수직적·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내재적 갈등과 격동기의 국제적 외압을 통해 혼돈과 변혁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빠른 속도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19세기 조선의 주관적이며 수직적,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신세대에 의한 직설적이며 감정적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증가와는 달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여전히 사적(私的)이며 주관적인 질문이 포함됨으로써 서구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는 서구인들과의 메시지 해석에 대한 문화적 오류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선행된 과거의 축적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궤적에 의한 것이므로 글로벌 시대의 원활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19세기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문화 갈등 요인을 탐색하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일 또한 매우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조선인 문헌을 제외한 서구인 기록만을 분석함으로써 일방적인 서구인 관점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치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인 문헌이 19세기 후반 기록에 집중된 까닭에 정확한 시대별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9세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초기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 내용분석을 통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전개과정을 파악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문헌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전술한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19세기 조선인이 기록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문헌자료를 발굴, 선정하여 서구인 기록과의 대조를 통한 비교 문화적 접근 방법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llen, H. N.(저)/신복룡(역), 『조선견문기』. 서울: 집문당, 1999.
- Bishop, I. B.(저)/이인화(역),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2003.
- Boulesteix, Frédéric(저)/이향·김정연(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서울: 청년사, 2001.
- Серомевский, Вацлав(저)/김진영·안지영·권정임·안상훈·이장욱(역), 『꼬레아, 1903년 가을』. 서울: 개마고원, 2006.
- Cres, W. R.(저)/신복룡(역), 『조선풍물지』. 서울: 집문당, 1999.
- Ducrocq, Georges(저)/최미경(역),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 서울: 눈빛, 2001.
- Gale, James S.(저)/신복룡(역), 『전환기의 조선』. 서울: 집문당, 1999.
- Genthe, Siegfried(저)/최석희(역), 『겐테의 한국기행』.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 Grebst, W. A-son(저)/김상열(역),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전 한국을 걷다』. 서울: 책과 함께, 2005.
- Hall, B.(저)/신복룡(역), 『조선전』. 서울: 집문당, 1999.
- Kemp, E. G.(저)/신복룡(역), 『조선의 모습』. 서울: 집문당, 1999.
- Oppert, E. J.(저)/신복룡(역), 『금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2000.
- Sands, W. F.(저)/신복룡(역), 『조선비망록』. 서울: 집문당, 1999.
- Savage-Landor, A. H.(저)/신복룡(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1999.
- Underwood, L. H.(저)/신복룡·최수근(역), 『상투의 나라』. 서울: 집문당, 1999.
- Varat, Charles & Chaillè-Long(저)/성귀수(역), 『조선기행』. 서울: 눈빛, 2001.
- Vautier, Madame Claire & Hippolyte Frandin(저)/김상희·김성언(역),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

- 기』. 서울: 태양사, 2004.
- 關世杰(저)/한인희(역), 『이문화 교류학』.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 Карнеев, В. П.(저)/김정화(역), 『내가 본 조선, 조선인』. 서울: 가야넷, 2003.
- 구만옥, 「17세기 조선과 서양의 만남: 16~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서양이해와 세계관의 변화」. 『동방학지』 122권, 2003, 1~51쪽.
- 김우룡·장소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 2004.
- 백성현·이한우, 『과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서울: 새날, 1999.
- 이광린, 『한국사강좌 근대편』. 서울: 일조각, 1984.
- 최윤희·김숙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범우사, 1997.
- 추계자, 「비언어적 요소인 한·독 신체언어 기호의 비교분석」. 『독일어문학』 7집, 1994, 93~118쪽.
-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 1994.
- Hall, Edward. T., *Beyond Culture*. N. Y.: Anchor Books/Doubleday, 1976.
- Hofstede, Geert,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1991.
- Jandt, Fred 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8.
- Kendon, Adam, *Nonverbal Communication, Interaction, and Gesture: Selections from Semiotica*. The Hague: Mouton Publishers, 1981.
- Knapp, M. L.,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N. Y.: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72.
- Maletzke, Gerhard, "Intercultural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H. D. Fisher and J. C. Merrill(eds.), *International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 Y.: Hastings Publishers, 1976.
- Samovar, Larry A. & Richard E.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Belmont, CA: Wadsworth, 2004.

### 국문 요약

역사상 가장 큰 변환기인 19세기 초 조선은 서구와의 문화접촉이 시작되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초기 단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인인식이 전혀 없는 불확실성

이 높은 상황에서 시작된 만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총체적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의 문헌을 통해 19세기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이한 언어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초기에는 언어보다는 필담과 신체 언어 등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인 반면 유사발음과 문화적 차이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주관적이며 수직적인 동시에 상황과 직관이 중시되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된 과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궤적을 살펴본 본 연구는 19세기 조선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투고일 : 2008. 7. 11.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비언어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 비교문화 연구(Cross Cultural Studies).